

진 청 89-99

灌園 朴啓賢 字君沃 號灌園 明宗朝文科 兵判

八九

돌널근 五禮城에 허나쁜 벗이 안자
故鄕感淚를 뉘 아니 지리마는
아마도 爲國丹忱은 나 뿐인가 호노라

註 1) 五禮城 : 오리성이라고 하는데도 있는데 있는 곳은 알지 못하며 나라의 변방에 있는 성이 아닌가 하고 추측이 된다.

2) 허나쁜 : 해고 남은 여럿 되는

3) 뉘 아니 지리마는 : 뉘 아니 가질 가마는, 뉘 아니 눈물지으랴 마는

4) 爲國丹忱 : 나라를 위하는 피끓는 정성

解 밝은 달빛이 환하게 비치는 오리성 城樓에 몇몇 동지들이 둘러앉아 고향을 생각하며 눈물겨워 하는 마음에 어느 한사람인들 빠져들지 않으랴 마는 아무래도 나라의 편안함을 바라는 피 끓는 정성에 불타는 것은 나뿐인가 하노라.

松川

梁應鼎字公燮號松川 明宗朝登第魁重試官至府尹

九〇

太平天地間에 簞瓢를 두러메고
두스매 느리혀고 우쥌우쥌 호는 뜻은
人世에 걸닌 일 업스니 그를 조하 호노라

註 1) 簞瓢 : 표주박과 도시락. 표주박으로 만든 도시락. 즉, 가난한 살림살이 도구.

2) 두스매 : 두 소매란 옛말

3) 우쥌우쥌 : 우쭈우쭈. 뒤통거리며 걸어간다는 옛말

解 태평천지 온 세상이 평화롭고 조용하니 간단한 도시락을 둘러메고 두 소매를 늘어뜨리고 우쭈우쭈 괴상한 것을 하며 걸어가는 것은 사람이 살아가는 세상에 남에게 놀리는 일이 없으니 그것을 좋아한다.

九一

嚴冬에 뵘웃 님고 岩穴에 눈비 마자
구름 찢 벗 뉘를 뵈 적이 업건마는
西山에 히 지다히니 눈물에 겨워 호노라

註 1) 嚴冬(三冬) : 겨울의 석 달 동안을 가르키는 말. 음력으로 시월(10월), 동짓달(11월), 섣달(12월)을 말한다.

2) 岩穴 : 바위틈에 있는 거처. 바위굴

3) 옛말로 : ①누구, 누구나, 누구의 ‘누’의 主格사. ②별로 대단치 않은 것, 작은 것, 등의 뜻으로 쓰임. 본문에서는 얼마간, 별로, 작은 일로 풀이된다.

4) 西山에 行 지다하니 : 서산에 해가 지다라는 말이나, 여기서는 임금이 下世하다, 죽었다 라는 의미로 풀이한다.

解 세상을 등지고 사는 신세이니 추운 겨울철 삼동에도 배옷으로 겨우 몸만 가리고 바위틈에서 눈비를 맞으면서 살아가노라. 환한 햇별은 고사하고 구름 낀 얼마간의 햇별도 짝이 본 적이랴곤 없다. 그래도 그 해가 서산에 넘어가니 어쩐지 슬픔을 이기지 못하여 눈물을 주체하지 못한다.
▶ 추운 겨울에 배옷을 입고 바위굴 속에서 눈비를 맞고 살면서 조그만 임금의 은혜도 받은 적이 없지만, 임금께서 승하하셨다고 하니 눈물을 이길 수가 없구나.

南窓

金玄成 字餘慶 號南窓 明宗祖文科官至同敦有文才善筆

九二

樂只자 오늘이여 즐거온자

今日이야 즐거온 오늘이 형혀 아니 저물세라

每日에 오늘 꺾트면 뜨슴 시름 이시리

註 1) 樂只 : 즐겁구나

2) 아니 저물세라 : 안 저물었으면 좋겠다.

解 즐겁구나 오늘이여 즐거온자 금일이여 즐거운 오늘이 행여 아니 저물세라 매일에 오늘 같으면 무삼 시름 있으니

萬竹

徐益字君受號萬竹 宣武朝登第官至義州牧使

九三

이피홀 허러내여 저 바홀 메오며는

蓬萊山 고은 님을 거러가도 보련마는

이몸이 精衛鳥 ㄹ뵈야 바잔일만 호노라

註 1) 蓬萊山 : 중국사람들이 생각하는 동해 한가운데 있다고 믿는, 神仙이 살고있다는 환상의 仙山. 성스러운 산

2) 精衛鳥 : 바다의 작은 새. 나뭇가지와 돌을 물어서 동해를 메꾼다는 전설이 있다.

3) 바잔일만 호노라 : 하지도 못하는 일. 바라지도 못하는 일. 부질없는 일을 생각하고 하려고 한다면의 옛말.

解 이 산을 헐어다가 저 넓은 바다를 메운다면 봉래산에 있는 고운임(그리운임)을 걸어가서도 볼 수가 있겠으나, 이 몸이 정위조 같아서 되지 않는 일을 하려는 부질없는 일만을 생각하려 드는구나

九四

綠草晴江上에 구레 버슨 물이 되야

재 | 로 머리 드러 北向 하여 우는 뜻은

夕陽이 재 너머 가매 님자 그려 우노라

註 1) 구레 버슨 물 : 굴레 벗은 말. 여기서는 늙어서 벼슬을 물러난 몸이란 뜻.

- 2) 北向 : 북녘을 바라 봄. 여기서는 신하가 임금 계신 쪽을 향함을 뜻함.
 3) 夕陽이 재 너머 가매 : 여기서는 저물어가는 인생을 뜻함. 즉 임금의 우환을 가리킴

解 날씨가 맑은 날에 푸른 풀이 깔린 강가에 굴레를 벗어 마음대로 뛰노는 말이 되어서 때때로 머리를 들어 북쪽을 바라보며 우는 까닭은 저녁 해가 서산 너머로 저물어 가는 것이 안타까워 그 님을 그리워하는 나머지 우는 것이다.

▶ 이 시조는 작가가 의주목사에 올라 있을 때 율곡 이이(李珥)의 탄핵을 변호하다가 파직 당하여 고향인 충청도에 내려가 있을 즈음에 지어진 작품으로, 임금에 대한 곧은 충성심을 노래한 것이다. '굴레 벗은 말'은 관직에서 물러난 자유로운 몸을, '북향하여 우는 뜻은'은 충성심을 각각 비유하는 것으로, 늙어 가는 나이에 임금을 그리는 정이 더욱 안타까움을 노래하고 있다.

荷衣子

洪迪字太古號荷衣子 宣武朝登第選湖當官止舍人

九五

어제 오던 눈이 沙堤에도 오듯든가
 눈이 모래갯고 모래도 눈이로다
 아마도 世上일이야 다 이런가 ㅎ노라

- 註 1) 砂堤 : 모래제방, 모래언덕, 모래사장
 2) 오듯든가 : '오더난 말이나'의 옛말

解 어제 오던 눈이 사제에도 오더란 말이나 흰눈이 모래 같고 흰모래는 흰눈 같이 보인다. 아마 세상의 일들이 모두가 다 이런 것이 아니겠느냐. 그저 그놈이 그놈 같고 그렇고 그렇게 보일 따름이다. 누가 특별히 잘나고 못나고가 있겠으며, 누가 특별히 착하고 악함이 없는 것이 이 세상이라 하겠다.

朴仁老

宣武時武人官止萬戶 漢陰見盤中早紅使朴仁老命 作三章盖出於思親至誠

九六

盤中 早紅감이 고와도 보이느냐
 柚子 | 아니라도 품엄죽 ㅎ다마는
 품어가 반기리 업슬식 글로 설워 ㅎ는이다

解 소반 위에 놓은 홍시가 무척 곱게도 보이는구나 이것이 비록 유자는 아니지만 품어 가지고 가야 반가와 해 주실 이(부모님)가 계시지 않으니 그것을 서러워하노라.

▶ 이 시조는 조홍시가(早紅柿歌)라고 하는데, 지은이가 선조 34년 9월에 한음 이덕형을 찾아가 조홍시의 대접을 받았을 때 회귤(懷橘)의 고사를 생각하고 돌아가신 아버지를 슬퍼하여 지은 효도의 노래이다. 한마디로 풍수지탄(風樹之嘆)을 연상케 하는 노래로 작가의 아버지에 대한 효성심이 눈앞에 생생하게 떠오르는 듯 하다.

九七

王祥의 鯉漁 잡고 孟宗의 竹筍 것거
검던 머리 희도록 老來子의 오슬 님고
一生에 養志試孝를 중子갓치 흐리이다

解 왕상이 겨울날 잉어를 얻어 어머니의 병을 고치고, 맹종이 겨울에 죽순을 얻어 그 어머니를 기쁘게 했고, 노래자가 칠순의 나이에든 때때옷을 입고 재물을 부려 아버이를 즐겁게 했으며, 또 증자가 아버이를 잘 봉양하여 지극한 효성을 다했듯이, 나도 그들에 못지 않은 효도를 해야겠다는 것이다.

九八

萬鈞을 느려내야 길게 노를 꼬와
九萬里長天에 가논히를 자바 밋야
北堂에 鶴髮雙親을 더디 늙게 흐리라

註 1) 萬鈞 : 한근은 30근이다. 따라서 만근은 삼십만 근이란 뜻이다.

2) 가논히 : 가는 해, 지는 해의 옛말

3) 北堂 : 두어머이 양친이 계시는 집을 말한다.

4) 鶴髮 : 학의 깃(날개)이 된 것을 비유 삼아 흰머리를 한 늙은이를 학발이라고 한다.

5) 雙親 : 어머니 아버지를 양친이라고 한다. 또한 쌍친이라고도 한다.

解 삼십만 근이나 되는 많은 노를 늘어 내어 길게 노끈을 꼬아서 구만리나 되는 높은 하늘에 떠 있는 해를 잡아매어 놓아 북당에 계시는 백발이 되어 늙으신 양친 부모님을 더디게 늙으시게 하련다.

九九

群鳳 모도신의 외가마귀 드려오니
백옥 빠힌디 돌 하나 갓다마는
鳳凰도 飛鳥와 類ㅣ시니 되며 놀들엇드리

解 많은 봉황새가 모인 곳에 외 까마귀 한 마리가 날아 들어오니 백옥에서 빼어낸 돌 하나 갓다마는 봉황새도 나는 새와 같은 종류의 새이니 같이 어울려서 놀고 갈까 하노라